

입시 경쟁, 청소년 억압, 전쟁에 반대하는 청소년 다함께

리플릿이 더 필요하시거나, '청소년 다함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010.7386.0319, youthatg@naver.com http://www.alltogether.or.kr

우리는 완전한 두발자유화를 원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학교는 공부에 방해가 되고 "학생다워"야 한다며 머리를 자른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체벌이 학교 안에서 늘 벌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길이와 공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왜 맞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작년 내신등급제 반대시위가 벌어진 직후 학생들이 두발자유화를 요구하자 교육부는 두발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들은 공청회를 열어 두발 규정을 학생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이 말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말들은 사라지고 심지어 조금 완화된 두발 규정마저도 다시 이전 규정-스포츠, 귀밑 3센티미터-으로 되돌아갔다.

교육부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고, 학생들은 허탈해 했다. "두발 자율화요? 순진하게 믿은 우리가 바보죠.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학생 의견은 왜 물었는지 모르겠어요."(〈한겨레〉6월 14일)

그리고 얼마 전 양동중학교 운동장에 모인 2백 명의 학생들처럼 용감하게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오로지 대학 진학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강요받는다. 두발규제·체벌·복장단속 심지어 생각할 권리마저도 억압받는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정치참여'라는 이유로 징계대상이다. 정말이지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춰있다.'

한국은 OECD국가들이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치권과 인권

에 대해 아직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인권 후진국이다.

작년 8월 대만의 중·고등학생들이 두발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대만 정부는 후퇴했고, 학생들은 완전한 두발 자유화를 쟁취했다. 두발자유화 이후 대만의 한 학생은 "이제야 내 존재감을 찾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체의 자유를 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완전한 두발자유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우리 손으로 되찾을 수 있다. 입시경쟁·두발규제·체벌 그리고 우리를 묶어매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함께 행동하자!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발 규제에 반대합니다

전교조 인천지부
연화중학교 배상철 선생님

경찰이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학생을 지도한다며 머리를 깎았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라지만,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규정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머리 길이와 모양을 마음대로 규제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선의의 생각, 교육적 행위라는 미명하에, 경찰보다 더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입니다. '인간의 가치' 중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는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 즉 인권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가장 가치 있는 교육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갖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권리만큼은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신만의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학생

들은 자신만의 헤어스타일을 꾸미면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학교와 선생님들은 어김없이 학교 규정을 이유로, 학생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소불위 권력을 학생들에게 행사합니다.

아직도 학교에는 학생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학교에는 국가의 법률도 없습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것은 획일화된 두발·복장·입시교육 같은 것들 밖에 없습니다. 통제된 교육 환경 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학교에서 행복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학생 두발 자율화 문제를 학생회와 일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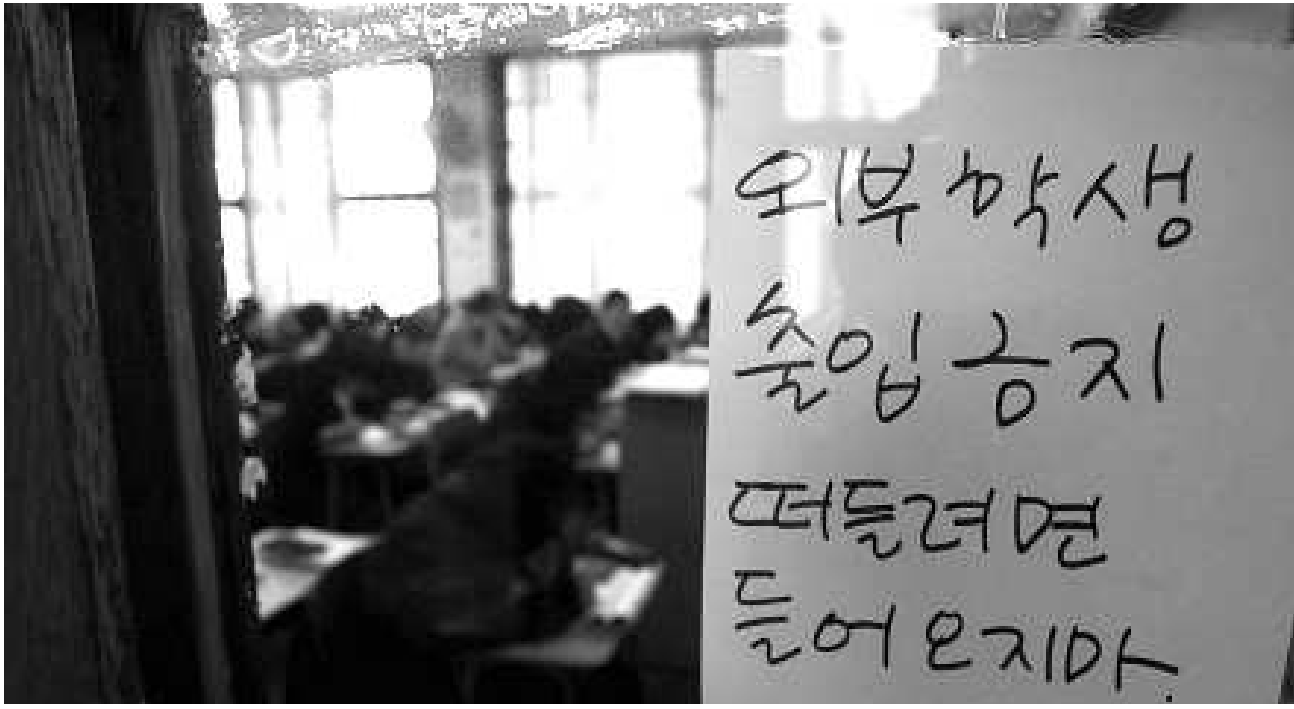
들이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얻을 수 없는 벽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두발지도가 학생 불만을 초래하고, 학교가 홍보화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학교 학생들이 두발 단속에 반발해 학교에서 집회를 한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학생들의 불만을 애써 외면해 온 제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이제 학생 인권을 유린, 훼손하는 두발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교사들과 함께,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두발 제한이 폐지될 때까지 미력하나마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매일 규정이 자기 멋대로 바뀝니다. 우리 학생부장을 일제 총독이라 하고, 이 제도를 단발령이라 하며, 지금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여학생이 마술에 걸리는 날.. 죽지 않는다며 밤늦게까지 학생을 책상 앞에 묶어놓는 학교, 학생을 두들겨 팬 뒤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학교, 가슴이 커 보이는 여학생을 막대기로 쿡 쿡 찌러보고 재미있어하는 학교. 이것이 과연 학교일까요? 감옥일까요?”

“두발규제 하면서 우리 위해준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비평 존화지역이라 고등학교임시도 열심히 공부해야하는데.. 평 존화지역으로 해 주던가”

“우리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감옥연합국가입니까?”

“머리 기르는거랑 공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학생들은 사람도 아닌가— 두발자유만은 시켜줬으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못 기르게 하는 건 불공평해요 ㅠ.ㅠ”

“학생이 뭐 죄 지었습니까 왜 머리를 못 기르게 하는데요!”

“우리는 모야? 틀에 박혀서 뭐하나 못하면 두들겨 맞고 또 우리가 무슨 돼지 소야?”

“지들이 원래 1등급 2등급 표시를 해 대한민국 고등학교 다 엇 먹으라고 해!”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 학교를 공부하러 다니지 머리 자르러 다니나 —”

“시험스트레스에 잠도 모자라고 숙제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머리규정까지 있으니”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고작 뒷머리 1센치 -> 3센치로 완화. 귀 덮으면 안되고 앞머리는 7센치 ㅠ.ㅠ”

입시 경쟁에 짓밟히는 청소년 인권

지난 5월 2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4개 주요 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덕분에 시험 기간 중 복통과 위염, 두통으로 결석하거나 조퇴하는 학생이 빈번하게 생기는 등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훨씬 커졌다.

특히,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와 1점을 두고 다투며 “필기한 공책이나 교과서를 보여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친구를 적으로 보게 만들며 학생들의 인성을 파괴하는 내신 상대평가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걱정하는 체 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입장도 학생들의 대안이 될 순 없다. 이들은 학교 별로 학력 격차가 크다며 내신 강화가 아니라 대학별 본고사를 요구한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입시를 좌우할 때도 그 부담은 결코 작지 않았다. 대학별 본고사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면 자신의 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아가 그에 대비한 치열한 입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1위 서울대, 2위 연·고대, 3위 ...’ 식의 철저한 대학 서열 구조 때문이다.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신 비중을 높이면 대학별 고사를 치르든 입시 경쟁은 줄어들 수 없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보수언론들은 ‘평준화는 곧 하향평준화’라며, 대학평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교 평준화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킨다면 유럽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에 비해 형편없는 실력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게다가 OECD가 3년마다 조사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는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한국 고등학생들을 핀란드에 이어 2위로 평가했다. 물론 1위인 핀란드도 한국보다 더욱 철저한 평준화 정책을 펴는 나라다.

반면 명문 사립고가 많고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순위가 낮았고, 특히 영국과 미국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사실 한국 학생들의 인권을 가장 크게 파괴하고 있는 것은 입시 경쟁이며, 이런 입시 경쟁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학생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머리를 마구 깎고, 또 때리기도 하는 것 아닌가.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나 과도한 입시 경쟁의 원흉인 대학 서열 구조 폐지를 함께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강동훈



함께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친구들에게

안녕?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고딩이야.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건 참 힘든 것 같아.

중학교 때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에서는 일류 대학진학을 위해 친구를 받고 올라서러 아등바등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워.

심지어는 초등학교생들까지 더 좋은 영어 발음을 위해 혀를 늘리는 수술을 일찌감치 하기도 한대.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입시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나는 너무 힘들어. 학벌주의에서의 승자, 소위 명문대출신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정말 큰 차이가 나잖아?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명문대 졸업증을 필요로 하고 결국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에 학교에 갇혀 주입되는 지식만을 받아드리게 될 뿐인 거지.

매 해 수능이 끝나면 성적비관으로 인해 몇몇의 수험생들이 자살을 하고, 내신등급제가 시행된 이후에 고등학생만 수십 명이 자살을 했어.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또 입시지옥에 목숨을 던졌어. 너희들도 아마 기억날거야. 한 초등학교생이 ‘자유로운 물고기가 되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던 것. 이 친구에게 동감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 또래의 친구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그 친구가 느꼈을 부담과 중압감이 이해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

소중한 친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입시교육, 그 속에서의 끔찍한 경쟁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래.

너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 청소년

포럼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

입시교육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말이야.

과연 무엇이 우리 학생들을 미치게 하는 것일까? ‘청소년 다함께 포럼’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토론하면서 생각해보자.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입시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현실에서 가능할거야.

같은 처지의 고등학생 친구 ‘청소년 다함께’ 성하림

청소년다함께 포럼



무엇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미치게 하는가?

언제 : 2006년 5월 27일(월) 오후 3시.
어디서 :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MIZY(충무로역 4번 출구)
궁금한 점 : 010.7386.0319, youthatg@naver.com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등급제 · 본고사 · 수능’ 동영상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끔찍한 입시지옥속에서 하루하루 친구를 적으로 만들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무지개빛 꿈을 앗아가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입시지옥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권이 짓밟히는 걸까요?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봅시다.